



오세훈 서울시장의 7일 오전 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개회식에서 한 영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 서울디딤돌소득 지원 2년 탈수급 비율 8.6%로 확대

### '디딤돌소득 포럼' 성과 발표 132가구 탈수급...476가구 소득증가 비교가구 대비 '근로시작' 3.6%p ↑

오세훈표 소득 보장 정책 실행이자 대표적 K-복지모델인 '서울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은 가구의 2년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이상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1년차 4.8%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8.6%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서울디딤돌소득 1단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와 2단계(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588가구(지원가구 1100가구, 비교집단 2488가구)다.

분석 결과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 지원자의 탈수급률은 132가구로 8.6%에 달했다. 이는 1차년도 23가구(4.8%)보다 3.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의미 있는 성과도 냈다.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포인트 높아지면서 근로 유인 호

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 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포인트 높았다.

이외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졌는데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 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 형성 유인을 저해할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준다고 시는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 “주거의 변화·도로의 혁신 등 스마트도시 서울 체험하세요”

### 서울시, 10일 '스마트라이프워크' 국내·외 147개 기업 전시관 마련 49개 기업 첨단기술 체험공간 조성

사람 중심의 동행 매력 가치를 담아 체험형 전시를 선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ICT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전 세계 도시와 기업 관계자가 서울에 모여 최신 트렌드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술과 사람을 연결해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도시 서울을 체험한다.

서울시는 국내 혁신기업을 전 세계에 세일즈하고 미래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제적 플랫폼 '스마트라이프워크(SLW)'를 오는 10~12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스마트라이프워크의 슬로건은 '사람 중심의 기술, 더 나은 삶으로 연결하다'이다.

먼저 국내외 총 147개 혁신 기업이 '첨단기술이 바꾸는 도시 생활의 미래'를 주제로 마련한 전시관을 만나볼 수 있다.

쇼룸에는 총 49개 기업이 참여해 ▲ 일상 속 로봇 ▲ 주거의 변화 ▲ 도로의 혁신 ▲ 아동의 미래 ▲ 찾아가는 복지 ▲ 안전한 환경 등 총 12개 주제로 미래 도시생활에서 첨단기술을 체험하는 컨셉의 공간을 조성했다.

기업전시관에는 약자동행, 혁신기술, 관광, 모빌리티를 포함 4개 분야에 총 98개 혁신기업이 동참했다. 약자동행기술존에서 포스코스틸리온은 시각장애인용 미술품을 전시하고, 국립재활원은 침대로봇과 식사로봇 등 다양한 재활 기술을 선보인다.

눈여겨볼 프로그램은 국내기업이 해외도시 관계자에게 직접 발표하는 'Presentation for Your City(PYC)'이

다. 서울시는 SLW에 참가하는 해외 도시들을 대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벌이고 솔루션을 희망한 18개 해외 도시와 국내 혁신 기업의 매칭을 완료했다.

매칭된 기업은 이달 10~11일 SLW 전시관에 마련된 PYC 전용 부스에서 맞춤형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된다. 도시와 기업 간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매칭해주는 PYC는 SLW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시는 강조했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올해는 스마트라이프워크(SLW)의 정체성을 사람 중심에 두고 국제 행사로서의 기반을 닦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동행·매력 가치를 시민들과 국내외 기업·도시가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 “한강버스·여의도 선착장 특혜논란, 사실 아냐”

### “가덕중공업, 용접공 등 인력 확보 선박 정상적 건조… 면밀 감독 중”

서울시가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 업체 특혜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7일 해명했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선박으로 잇는 서울시의 수상 대중교통 수단이다. 시는 연내 선박 8대를 도입한 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민간 운영사인 이크루즈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기존의 조선소(은성중공업) 외에 추가로 지난 3월 28일 가덕중공업을 선정, 현재 2개 조선소에서 총 8척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은 지난 8월 시정질문에서 가덕중공업이 직원과 공장도 없고, 선박 건조 실적도 없어 한강버스를 건조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날 오후 약식브리핑을 열고 “현재 가덕중공업은 알루미늄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용접공 등의 전문 인력을 협력 업체를 통해 확보하고, 4개 작업장(경남 통영, 경남 고성, 전남 영암, 부산 영도)을 임대해 정상적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덕중공업이 선박 건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4개 공장에는 선주감독단이 상주하면서 선박 건조 과정을 면밀하게 감독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가덕중공업은 오는 12월 2척, 내년 1월 2척, 같은해 2월 최종 2척의 선박을 한강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배를 만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는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관련

의혹도 해명했다. 시는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뱃길의 선박 운항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작년 5월 1일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서울시 재정투입 없이 전액(300억원) 민간 재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올 12월까지 여의도 선착장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가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의 협약서에 사업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영구적 사업 시행이 가능토록 했고, 사업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 기간과 관련해 시는 여의도 선착장은 유선 사업 면허의 유효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있으며, 하천법에 따라 3년마다 하천 점용 허가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 킨텍스, 17일 경기국제웹툰페어 개최

145개사 참여... 20일까지 진행

킨텍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전문 전시회 '2024 경기국제웹툰페어'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웹툰페어는 B2C와 B2B 전시회로 나뉘어 진행되며,

국내 웹툰 산업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번 B2C 전시회에서는 웹툰 제작사, 플랫폼, IP 콘텐츠, 기술, 아카데미 등 다양한 분야의 145개사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주요 참가업체로는 카카오펀터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다운크리에이티브',

'디씨씨엔티', 'AB엔터테인먼트' 등이 있으며, 특히 AB엔터테인먼트는 인기 판타지 웹소설 '이세계 착각 헌터'의 웹툰화를 단독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3회 대한민국학생 코믹아트 웹툰공모전' 수상작과 여러 대학의 아카데미 작품들도 전시될 예정이다.

B2B 행사에서는 웹툰 기업의 판로 개척과 IP(지식재산권) 거래를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가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된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4 | 해질 / 18:05

**10월 8일 (화)** 음력 : 9월 6일

수도권 날씨 **13~2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10/23, 동두천 10/23, 가평 10/23, 파주 9/23, 서울 13/24, 양평 11/23, 인천 14/22, 수원 13/22, 용인 13/22, 평택 12/2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가자전쟁 1년 간 이스라엘에 179억 달러 지원” /사진 뉴시스  
▲中 ‘경제총괄’ 발전개혁위, 8일 기자회견... “부양책 보완효과 노려”

▲日 국회, 8일 강제불입 피해 보상법안 가결... “2000만엔씩 지급”  
▲이시바 日 내각 지지율 51.6%... “2008년 아소내각 다음 낮아”



▲“이스라엘 공격 성공 단정 못 해...이란 궁지에 몰려”  
▲美 석유업계, 트럼프 후보에 “IRA 전면 폐지 반대” /사진 뉴시스